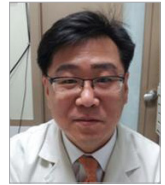


이 인기 원장과 함께하는 실전 수의치과

16회 - 폴리싱1 (에어 제트 폴리싱)



이 인기
튼튼동물병원 원장
medivetmen@hanmail.net

Q. 후배병원에 가보니 저희병원에서 사용하는 폴리싱기와 다른 에어제트 폴리싱기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폴리싱기를 부착하는 로우스피드 핸드피스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던데, 폴리싱 시간도 빠르고 효과도 좋다고 후배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니다. 저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서, 혹시 사용시 주의사항이나 적용이 안되는 환축이 있는지, 마침 원장님께서 스퀘링 분야를 연재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A. 이번호에서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엔진 폴리싱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했는데, 원장님께서 에어제트 폴리싱에 대해 질문을 해서, 우선 원장님의 답을 먼저 드리고, 다음호에 엔진 폴리싱에 대해서 연재하겠습니다.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스퀘러는 아래 좌측에 있는 모양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아래 우측의 엔진 폴리싱기를 좌측의 스퀘러기에 연결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에어제트 폴리셔는 아래의 모양일것입니다.



우선, 에어제트 폴리싱이 모두 기존의 엔진 폴리싱에 비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엔진 폴리싱보다 훨씬 안좋을 수도 있고, 원장님께 권해준 후배원장님도 질문을 보다보니 잘못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 에어제트폴리싱에 대해서 원장님과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스피드 핸드피스에 연결한다(X)-하이핸드피스 장착부분에 장착하여야합니다.

원장님 질문을 보면 후배원장님이 기존의 엔진 폴리싱할 때 사용하던 로우스피드 핸드피스에 장착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로우스피드에 장착을 해도 작동은 됩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좌측이 하이 핸드피스이고, 오른쪽이 로우핸드피스입니다.

구분법은 로우핸드피스는 사진과 같이 모터가 중간에 들어가므로 하이핸드피스와 로우 핸드피스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 사진과 같이 하이핸드피스를 장착하는 부위에 에어 제트포리셔를 장착을 해야만 합니다.

하이핸드피스부분은 냉각수가 같이 나오는데, 비해서 로우 핸드피스부분은 냉각수가 같이 안나오므로 하이핸드피스부분에 장착을 해주셔야합니다.



에어제트 폴리싱 방법

요즘 DVM에 에어제트 폴리셔를 소개하고 나서 많은 원장님들이 에어제트 폴리셔를 장착해서 사용하는데, 원장님마다 폴리싱 방법이 모두 제각각이고, 잘못된 폴리싱 방법을 사용하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이에 에어제트 폴리싱시 올바른 사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1. Grasp

에어제트 폴리셔는 펜 잡듯이 잡는 pencil grasp으로 잡아야합니다.



2. 에어제트 폴리싱시 치아의 시작부위

3등분한 크라운부위의 중간에 노즐을 향하고 원형동작(circular motion)으로 분사하여야 합니다.

3. 노즐과 치아의 거리

치아와 노즐의 거리는 4-5mm정도가 적당합니다.

4. 치아에 따른 노즐의 각도

아래의 사진과 같이 각 부위에 따른 각도가 다르니 유념하여야 합니다.

(교합면 90도) (구치부 80도) (절치부 60도)



5. 폴리싱 속도

1초에 치아 2개 정도의 폴리싱 속도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치아가 폴리싱이 잘안될 경우 인접치아를 한 다음 다시 원래의 치아를 돌아와서 폴리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Na질병 환축에는 에어폴리싱시 금기(스테로이드복용, 이노제복용, 호흡기 환축)

심부전(Heart failure), 신부전(Renal failure) 환축은 모두가 Na 섭취가 금기시 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에어폴리싱에 사용되는 퍼미스의 주성분이 탄산수소나트륨입니다. 실제로 원장님들이 먹어보면 Na 때문에 짠맛이 많이 날것입니다. 즉 에어폴리싱 자체가 Na질병 환축에 나쁜 것이 아니라 에어폴리싱에 들어가는 퍼미스의 성분이 탄산수소나트륨이기 때문에 안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스테로이드복용, 이노제복용, 호흡기 환축에 금기일 수밖에 없겠죠.

7. 어린 환축에서 금기

어린 환축에게 있어서 폴리싱을 하는 경우는 개에서는 드무나, 고양이의 경우 juvenile onset gingivitis-periodontitis의 경우에는 1살 미만이라도 폴리싱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이때는 에어제트 폴리싱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래 좌측 사진을 보면 나이 어린 환축은 치수강의 크기가 넓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래 우측 사진의 3살의 성숙한 환축은 치수강이 좁은 것이 보입니다.

(1년 이하의 어린환축)

(3살의 성숙한 환축)



위의 사진에서 보듯이 어린 아이는 아직 에나멜도 저형성 되어있고, 덴틴 역시 약하기 때문에 에어제트 폴리싱에 의해서 데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 환축에서의 에어제트 폴리싱은 금기입니다.

8. 치주염이 심한 환축에게는 조심스럽게 사용한다

아래와 같이 치주염에 의해서 염증이 심해서 치근이 노출된 환축에게 있어서, 에어제트 폴리싱을 실시할 때는 강력한 힘으로 인해 오히려 잇몸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을 하여야합니다. 가능한 이런 경우에는 엔진 폴리싱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9. 폴리싱 후 꼭 노즐을 니들로 청소를 해주어야한다

에어제트폴리싱은 냉각수(물)과 함께 분사되므로, 항상 사용 후에 노즐을 아래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니들로 막히지 않게 청소해 주어야합니다. 청소를 제대로 안해주면 앞의 노즐이 압력에 의해서 튀어 나가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10. 캡을 정확히 닫아주어야 한다

가끔씩 캡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닫으면, 캡이 날아가는 사고가 생기게 되므로, 아래의 캡을 나사선에 맞게끔 꼭 맞추어서 닫아주어야 합니다.



< 요약 >

이번 원장님의 에어제트폴리싱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많은 원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에어제트 폴리싱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기존의 엔진폴리싱에 비해서 시술시간이 빠르다는 것만 인식해서 치아와 노즐과의 거리, 시간, 각도도 고려하지 않고, 스프레이 하듯이 시술되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심지어는 로우스피드 핸드피스에 장착을 해서 치주염이 심한 심부전이 있는 환축에게 적용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로우스피드에 연결하기 때문에 냉각수도 만나와서 바로 나트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퍼미스가 치근에 쌓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폴리싱을 시술함으로써 환축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에 질문하신 원장님의 질문은 원래 다음호에 연재되는 것이 순서상 맞지만, 하루라도 제대로 시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순서를 바꾸어 이번호에 에어제트 폴리싱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면으로 설명하자니 많은 한계가 있으나, 조금이나마 에어제트폴리싱을 시술하는데, 최소한의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